

남원시 공약 이행률 72% 달성

민선 8기 올해 목표 60% 초과...41개 사업 중 18개 사업 완료

남원시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72%를 기록하며 올해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비전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개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생명바이오산업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등 2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등 1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히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을 통해 서남대 폐교로 지역사회가 겪은 상실감을 해소하고 청년 및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공약이다.

올해 3월 구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매입, 남원글로벌캠퍼스 환경정비 등 2027년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또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남원을 드론레저 스포츠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남원시 핵심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올해 10월 드론 이착륙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생명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50억원을 확보하는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강화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년에는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변화하는 남원의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청년의 시각·의견 군정 반영

명예 청년군수 제도 운영...업무 보고 등 수행



3일 고창군 청사에서 진행된 '제7대 명예 청년군수 위촉식'에서 명예 청년군수로 위촉된 김진수(왼쪽) 씨가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제7대 일일 명예 청년군수'로 김진수(30) 성도과학연구원 부사장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이 시행하고 있는 '명예 청년군수' 제도는 청년의 시각과 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명예 청년군수로 위촉된 김진수씨는 청년 소상공인으로 군정과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군수실에서 위촉패를 명예 청년군수 위촉패를 수여받고 업무보고·결재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12월 직원의 소통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직접 군청 직원들과의 소통과 함께 신원력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직접 사업 진행 상황 보고 등을 전달받는 등 명예 군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

김진수씨는 "고창군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운수대통 하려나...남원 운봉에 길조 '따오기' 낚셨네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백두대간 생태적 가치 입증

남원시 운봉읍 백두대간 인근 산덕리 삼산마을에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가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따오기는 과거 매우 흔한 겨울 철새였으나 환경 오염에 따른 서식지 감소 및 먹이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지리산 정령지 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 따오기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먹이가 있는 습지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이다. 이번 운봉에서의 따오기 발견은 남원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오기를 목격한 주민 박순택씨는 "멸종위기 따

오기가 운봉에 찾아오다니 놀랍다"며 "운봉읍민들이 염원하는 일들이 새해 모두 이뤄질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원시 운봉읍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길조 따오기의 출현은 운봉읍민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게 했다.

이은주 남원시 운봉읍장은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지의 중심인 운봉읍에 따오기는 큰 선물과도 같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읍민들과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길조 따오기가 찾아온 사실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삼산마을에서 목격된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남원시 제공>

고창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장관 표창

지역주민 고혈압 등 체크·검사비 지원...보건부 유공기관 선정

고창군이 '2024년 심뇌혈관예방관리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대상 매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고창군보건소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4개 항목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관내 14개 읍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체크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 합병증(안과 3종,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혈압수치 인지를 70.3%→76.7%

(6.4%p) ▲혈당수치 인지를 41.7%→53.3%(11.6%p)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를 60.3%→75.1%(14.8p)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를 52.8%→71.0%(18.2%p) 4개 항목 만성질환 건강지표의 눈부신 향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안전혈관 숫자 알기 상설교육장 운영(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포함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민간의료기관 협약 체결을 통한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무료 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백일해·폐렴 감시체계 강화

보건소, 손 씻기·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정읍시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응해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 수는 3만 2620명(11월 26일 기준)으로 지난해 292명 대비 약 111배 증가했다.

특히 정읍에서도 2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북 전체적으로는 1063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소아·청소년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면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된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 보건소는 적기 예방접종(생후 2, 4, 6개월 총 3회) 및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고위험군과 전파위험 집단 감염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경우, 지난 6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입원 환자 수는 2만 3625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배 증가했으며, 전북에서는 1444명, 정읍에서는 217명이 발생했다.

이 질환은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초기 증상 외에도 피부 홍반, 관절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손 씻기, 개인위생 관리, 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다. 또한,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은경 정읍시 감염병관리팀장은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해 홍보와 면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가로등 365곳 LED로 새단장

정읍시가 추진중인 LED가로등 교체·신규 설치 작업이 시민들의 안전통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비 5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신규 설치예정 200곳과 기존 가로등 중 불량 이 발생한 165곳의 가로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2만7000여개의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매년 신규 설치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정비대상 가로등

에 자동점멸기를 적용, 점·소등 시간 오차를 줄이는 한편 고장률 역시 낮춰 나가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를 더욱 밝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LED가로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